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생산성, 2분기에 생산량 증가로 반등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말 이후 최고치 기록
- YahooFinance: 샌프란 연준 총재 Daly, "금리 낮춰야 할 가능성 높다"

[미 관세 정책]

- Bloomberg: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검토...미 투자 기업에는 면제

[무역전쟁]

- Bloomberg: 트럼프, 인도 관세 50%로 두 배 인상

[자동차]

- WSJ: 자동차 산업, 무역 전쟁으로 120억 달러 타격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버거킹 모회사 Restaurant Brand, 해외 시장 성장으로 매출 회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tivity Rebounds in Second Quarter as Output Picked Up

미 생산성, 2분기에 생산량 증가로 반등

-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1분기에 감소한 이후 2분기에 연간 기준 2.4% 증가하면서 회복되었다.
- 연준 이사회 관계자들은 생산성 향상이 임금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을 포함한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 인건비는 많은 기업에서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장비를 발전시켜 근로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현재 일자리 시장이 침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임금 상승이 앞으로 더욱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Continuing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Since End of 2021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21년 말 이후 최고치 기록

- 실업 급여 신청 건수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지속적 청구 건수는 7월 말 38,000건이 늘어나 197만 건에 달했다. 지속적 청구 건수란,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반복적인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 정부의 7월 고용 보고서 발표로 예상보다 더 심각한 일자리 창출 침체가 나타난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동 시장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에 대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Fed's Daly: Fed will likely need to lower rates in coming months as job market has slowed

샌프란 연준 총재 Daly, “금리 낮춰야 할 가능성 높다”

- 샌프란 연준 총재 Mary Daly가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낮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세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겠지만, 고용 시장이 둔화한 것이 요인이 된다.
- Daly는 “노동 시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 시장은 흔들리면 심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그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지만 통화 정책으로 상쇄해야 할 만큼 지속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 예측했다.
- 한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인플레이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ahooFinance 기사

[미 관세 정책]

Bloomberg: Trump Eyes 100% Chips Tariff, Exempting Firms That Invest in US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검토...미 투자 기업에는 면제

-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 발표했는데,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 스마트폰, 자동차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수입에 이 같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애플 CEO 팀 쿡은 미 제조업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고, 이와 같은 의지를 보이는 기업은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된다.
-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미국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Major Trump-Related Corporate Pledges in the US

Top pledges by company

Company	Investment	Jobs
Apple	\$600B	20,000
Stargate	500	200,000
Nvidia	200	—
TSMC	100	60,000
Johnson & Johnson	55	5,000
Microsoft	40	0
Eli Lilly	27	3,000
Energy Capital Partners, ADQ	25	—
Hyundai Motor	21	100,000
Damac	20	—
CMA CGM	20	10,000
Venture Global	18	2,000
Merck & Co	8	—
Clarios	6	—
Stellantis	5	1,500
GE Aerospace	1	5,000

Source: Company statements, Bloomberg reporting

Note: Data as of April 1. We count 2,000 jobs or 200,000 jobs for estimates of "thousand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jobs created. We similarly count \$200 billion for estimates of "hundreds of billions" to be invested. Job tallies include direct and indirect jobs, and in some cases, construction estimates offered by companies.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Doubles Tariff on India to 50%, Sparking Outrage in Delhi

트럼프, 인도 관세 50%로 두 배 인상

-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페널티로 인도 상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다.
- 인도의 Narendra Modi 총리는 이번 구매가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관세 인상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을 60% 감소시켜 인도 GDP의 0.9%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보석, 섬유, 신발, 농산물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WSJ: Auto Industry Takes \$12 Billion Hit From Trade War

자동차 산업, 무역 전쟁으로 120억 달러 타격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거의 1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타격이다.

-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 또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두 방법 모두 제조업체가 신속히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백악관은 현재 자동차를 판매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산업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자동차 시장은 다른 규제 및 기술로 인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다.
- 토요타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영업 이익이 약 30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고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Burger King Owner's Sales Recover on International Growth
버거킹 모회사 Restaurant Brand, 해외 시장 성장으로 매출 회복

- 버거킹과 Tim Hortons의 모회사 Restaurant Brand의 매출이 2분기에 급증했다. 북미 지역 외 해외 사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 2분기 매출은 2.4% 성장했는데, 이는 1분기보다 빠른 성장이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수치이다.
- 북미 지역에서 Tim Hortons는 배우 Ryan Reynolds와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캐나다 고객 유치에 나섰고, 버거킹은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와 연계된 메뉴를 출시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고용지표악화·연준 '매파이사' 사임 후 美 9월 금리인하 기대↑
리사 쿡 "고용지표 악화에 우려...美 경제의 전환점 될 수 있어"
닐 카시카리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쿡 이사는 이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지난 1일 발표된 7월 고용지표에 대해 "기존 통계치에 대한 조정은 전형적인 전환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7만3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증가 폭이 전문가 전망에 못 미치기도 했지만, 앞선 5~6월 일자리 증가 폭의 하향 조정이 총 25만8천명에 달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